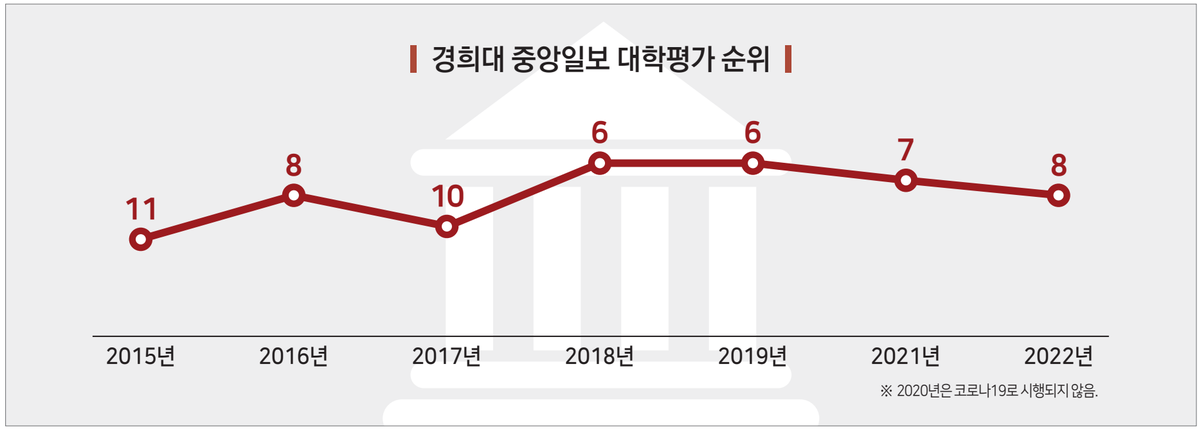

경희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8위 교육여건은 45개 평가대학 중 25위까지 밀려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교수연구 ▲교육여건 ▲학생교육 ▲평판도 4개 부문에서 총 33개 세부 지표, 300점 만점으로 매년 평가된다. 교수연구 부문은 교수의 논문 실적과 연구비, 기술이전 수입 등이 주요지표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률과 학생창업, 현장실습이 핵심지표다. 교육여건 부문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평판도는 여론조사와 브랜드파워인덱스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신문은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이전 실적과 비교를 통해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는 총 52개교가 참여했다. 이중 인문·사회·공학·자연과학·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45개 대학을 중심으로 종합평가가 이뤄졌으며, 우리학교는 전체 8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 연속 6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로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하락하는 추세다.

교수연구, 평판도 상위권 논문 및 연구 지원 · 관리 평가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

종합평가의 4개 부문 중 우리학교는 ▲교수연구(총 10개 지표·총점 95점)와 ▲평판도(총 4개 지표·총점 30점)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먼저 교수연구 부문에서 우리학교는 95점 만점에 59.08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은 교수연구 부문이 종합 8위를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교수연구 부문은 ▲교수 논문 실적 및 연구비 ▲기술이전 수입 등 총 10개의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일보는 질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논문 피인용 지수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우리학교는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에서 20점 만점에 14.20점을 기록하며 4위(인문·사회로 한정할 경우 3위)를 기록했다. 학술진흥팀 이준호 팀장은 "중앙일보 대학평가뿐 아니라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피인용 관련 부문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인용뿐만 아니라 저·역서 등의 수치까지 살펴봤을 때,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학술진흥팀 분석이다.

교수연구 부문 지표 중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도 총 1,646만 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컴퓨터공학과 박광훈 교수의 차세대 고효율 동영상 압축기술 국제표준 특허 등 기술 특허로 인한 수익 창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이전 관련 평가에서 우리학교는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 팀장은 "대학 차원에서 교수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어 좋은 실적을 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수연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연구에 대한 지원과 관리인 것으로 보인다. 학술진흥팀은 소속 교수의 업적 관리 시즌에 논문 입력 및 반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거쳤다. 첨단 연구 장비 구축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이뤄졌다. 이 팀장은 "전년 대비 자체 연구비를 대폭 확대해 양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평판도는 ▲리서치앤리서치(R&R)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 고교 교사 400명, 중학생 이상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브랜드파워인덱스(BPI)에서 진행한 대학 브랜드 파워지수를 바탕으로 평가됐다. 우리학교는 평판도에서 30점 만점에 21.46점을 차지하며 전체 8위에 올랐다. BPI 점수가 소폭 상승하며 전체 점수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학술진흥팀은 "위 순위인 중앙대학교와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소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수연구와 평판도에서의 선방과 달리, 교육여건과 학생교육은 실망스러운 점수를 받으며 전체 순위마저 하락했다. 더욱이 우리학교 기준 최고 성과를 기록했던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교육여건과 학생교육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평가는 이전과는 대비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여건 부문 전반적으로 열세 회복 방안 필요

교육여건 부문(총 12개 지표·총점 95점)에서는 39.43점을 받아 네 개 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2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네 단계나 순위가 하락해 45개 대학 중 25위에 위치했다. 해당 부문은 대학평가 지표 중 가장 많은 수인 12개의 지표로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 상황을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대학 학점 교류가 10점 이상의 점수가 배점됐다. 이어 ▲전임교원 확보율 ▲기숙사 수용률이 8점에 해당해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좌우한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지표에서 15점 만점에 3.88점을 받으며 34위로 평가 대상 대학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학금 지표를 측정하는 계산법은 등록금 대비 학부를 기준으로 교내 장학금 중에서 사전에 등록된 장학금만 집계됐다. 그에 반해 등록금은 계절 학기를 제외한 학부 등록금이 전체 집계돼 상대적으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포함한 전체 장학금 총액은 우리학교가 1위에 해당한다. 또한 재적 학생 수가 많아 등록금 총액 역시 1위다. 따라서 재적 학생들이 받는 국가 장학금은 대학평가에서 제외돼 장학금 지표가 더욱 과소 측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작년에 추가로 10억의 장학금을 배정한 바 있으나 등록금 총액 자체가 훨씬 많으므로 순위를 변화시킬 수준으로는 작동하지 못했다"며 "2022학년도 추경 예산 내에서 장학금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역시 10점 만점에 1.36점을 받으며 33위에 올랐다. 위 지표 역시 장학금 지표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대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비 총액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양대학교보다 높지만,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서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이 팀장은 "지표 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등록금 대비 장학금과 교육비 비율을 만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고 전했다.

'기숙사 수용률' 지표는 2020학년도 이후로 점수가 하락했다. 2020학년도에는 20%대의 수용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수용률은 17.2%로 평가대학 중 29위에 들었다. 수용률이 하락한 이유는 서울캠퍼스의 행복기숙사 C동과 삼의원이 창업 공간으로, 국제캠퍼스의 우정원이 교수 연구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수용 가능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은 "시설이 다소 열악한 곳에 학생들을 거주시키는 것보다는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숙사 수용률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창업 환경 조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숙사 확보는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문제라 당장의 수용률 지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대학 학점 교류' 지표는 위축된 결과를 보였다. '외국인 학생 비율' 지표가 3위로 상위권에 있는 것에 반해, '외국대학 학점 교류' 지표는 14위에 그쳤다. 2019학년도 학점 교류 현황이 총계되는 2020년 대학평가 점수에서는 파견 인원과 유치 인원을 합한 학점 교류 총인원이 2천 명대였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2022년 대학평가에는 각각 479명, 842명이 집계됐다. 이 팀장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국제 교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이 14위에 그친 원인일 것"이라며 "교환학생과 전공연수를 확대해 방학에도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논의 중"이라고 알렸다.

교육여건 부문에 대해 이 팀장은 "전반적으로 열세"라며 "어느 한 지표만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금도 여러 방안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엔 시차가 있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다"고 말했다.

학생교육 부문 취업률 및 현장실습 참여 비율 지속해서 하락

학생교육 부문(총 7개 지표·총점 80점)에서는 47.58점으로 45개 대학 중 17위를 차지했다. 직전년도 16위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부문에서 우리학교는 지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부진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부문은 ▲순수취업률 ▲유지취업률 ▲중도포기율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 ▲창업교육 비율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의 총 7개 지표로 나뉘어 평가됐다. 특히 ▲순수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은 종합평가 4개 부문을 통틀어 가장 높은 배점인 18점이 배정돼 대학평가 순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의 최근 3개년 '순수취업률'은 2019년 68.3%, 2020년 67.4%, 2021년 66.3%로 연이어 하락하는 형세다. 이는 종합평가 6위를 차지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가 떨어진 수치로, 올해는 14위를 차지했다. '유지취업률' 역시 마찬가지다. '1차 유지취업률'만을 비교했을 때 2019년 93.2%, 2020년 93.1%, 2021년 92.4%의 비율로 16위에 오르며 학생교육 부문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0점이 배정된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의 경우 0.4%로 2.85점을 받으며 24위를 기록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2.1%, 2021년 1.4%로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연도별 이수학생 수만을 비교했을 때도 2020년 734명, 2021년 492명, 2022년 152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교육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한 건국대학교(건국대)와는 약 4.5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팀장은 "현장실습 기준이 강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파견을 나갈수록 유리한데 이처럼 양질의 현장 실습 기간 확보에서 건국대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재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이라며 "성과를 내더라도 타 대학과 절대적인 성과는 유사한데(재학생 수로 인해) 지표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10점이 배정된 '중도포기율'은 2021년 소폭 향상 후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중도포기율은 2020년 1.7%, 2021년 2.2%, 2022년 2.2%를 유지했다.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 지표의 경우 ▲재학생당 창업지원금 ▲재학생당 기업 수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기업당 매출액 ▲기업당 고용인원의 5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됐다. 그 결과 15점 만점에 총 6.2점을 받았다. 이 팀장은 "(5개 항목의) 전체적인 합산으로 보자면 중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지표다"며 "창업 지원금이나 재학생당 기업 수,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등이 투자 대비 비례해서 학교 지표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창업교육 비율' 지표에서는 만점인 7점이 부여돼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국제캠퍼스의 필수이수 교양 과목인 '전공탐색 및 기업가정신 세미나'가 창업교육 과목으로 인정돼 높은 비율을 유지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는 이번 대학평가를 기점으로 다소 저조했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져 있었던 분위기를 이제 재개해야 될 것 같다"며 "현장 실습, 취업 박람회에 아울러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해 만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인 순위 말고 세부 지표를 봤을 때 전반적인 교육 개선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신문은 이번 중앙일보 종합평가 4개 부문 중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인 교육여건 12개 지표에 대한 상세 분석을 타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 신문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교수연구 부문

지 표	배 점 (점)	점 수 (점)	순 위 (위)
교수당 교외 연구비	15	8.58	15
교수당 교내 연구비	10	4.42	27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20	14.20	4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0	7.48	9
인문사회교수당 국내논문	5	2.66	20
인문사회교수당 저역서	5	3.46	10
인문사회 국내논문당 피인용	10	8.54	3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5	3.39	6
기술이전 건당 수입액	5	3.23	7
과학기술교수당 산학협력수익	10	3.08	29
합 계	95	59.08	7

교육여건 부문

지 표	배 점 (점)	점 수 (점)	순 위 (위)
전임교원 확보율	8	4.90	14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5	3.88	34
강의규모	5	0.90	43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10	1.36	33
세입 대비 기부금	5	1.48	22
기숙사 수용률	8	2.31	29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	7	3.79	15
외부경력교원 비율	5	2.78	14
외국인 교수 비율	5	1.71	25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9.81	3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7	1.30	39
외국대학 학점 교류	10	5.16	14
합 계	95	39.43	25

학생교육 부문

지 표		배 점 (점)	점 수 (점)	순 위 (위)
순수취업률		18	11.61	14
유지취업률		18	11.82	16
중도포기율		10	6.85	9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2	1.21	19
학생창업 지원 및 성과	재학생당 창업지원금	15	1.05	24
	재학생당 기업수		1.07	28
	재학생당 창업전담인력		1.04	29
	기업당 매출액		2	1
	기업당 고용인원		1.04	16
창업교육 비율		7	7	1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10	2.85	24
합 계		80	47.58	17

평판도 부문

지 표		배 점 (점)	점 수 (점)	순 위 (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8	6.37	8
교사 입학 추천 대학		8	5.79	8
자녀 진학 선호 대학		4	2.96	8
대학 브랜드파워지수(BPI)	대한민국발전기여대학	10	6.33	7
	지역사회 공헌대학			
	인재양성 강점대학			
	교수연구 강점대학			
	특성화 교육 강점대학			
	학생진로 강점대학			
합 계		30	21.46	8

※ 대학 브랜드파워지수(BPI)는 6개의 소지표로 나눠 각각 점수에 차등적으로 기준을 부여한 후 합산한 값임.
※ 모든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함.

대학평가 항목별 세부 지표 및 배점과 우리학교 점수